

보도시점 2024. 11. 12.(화) 11:00 < 11.13.(수) 조간 > 배포 2024. 11. 12.(화)

일 JSR, 반도체 극자외선(EUV) 공정 포토레지스트 국내 생산거점 구축

- 반도체 선단공정 필수소재 국내 생산으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김대자 무역투자실장은 11월 12일(화)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JSR사(社)의 반도체 극자외선(EUV) 공정 핵심 소재인 메탈포토레지스트(Metal Oxide resist, MOR) 생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JSR은 1957년 설립 이래 현재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분야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으로, 국내에는 2003년 충북 오창 공장을 설립하여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 처음 진출한 이래 꾸준히 투자를 확대하여 왔다.

오늘 기공식을 통해 JSR은 기존에 국내에 운영 중인 디스플레이 사업에 이어, 전 세계 기업 중 최초로 반도체 극자외선(EUV) 공정용 메탈포토레지스트 생산 거점을 한국에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투자 대상인 EUV 메탈포토레지스트는 기존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저사양 화학증폭형 포토레지스트를 대체하는 첨단제품으로 주요 반도체 생산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이다.

JSR은 2026년까지 생산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메탈포토레지스트를 양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기업 수요에 적기 대응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자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JSR의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청주시와 함께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엄재영 (044-203-4080)
	투자유치과	담당자	사무관	오유경 (044-203-4081)

1. 배경

- ☐ 반도체 소재 분야 외투기업인 日 JSR社は 충북 오창 內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MOR*) 생산공장 기공식 개최

* 금속산화물레지스트(MOR) :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회로 패턴 형성을 위해 도포하는 물질로, MOR은 차세대 소재로 기존 화학증폭형 대비 해상도가 높아 선단공정에 적용 예상

2. 행사개요

- ☐ 일시 및 장소 : '24.11.12(화) 14:00~15:00, 충북 오창과학산단 JSR부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4로 97

- ☐ 참석 : 정부·지자체 및 기업 등

- (정부·지자체)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김대자), 충북도지사(김영환), 청주시장(이범석) 등
- (기업) 日 JSR 본사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총괄(야마치카 미키오), 韓 JMK(JSR Micro Korea) 대표(이이지마 다카히로) 등

-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14:00~14:10	10'	■ 개식 및 내빈소개
14:10~14:15	05'	■ 사업 경과보고
14:15~14:25	10'	■ 기념사 (韓 JSR 대표이사) ■ 치사 (日 JSR 본사 임원)
14:25~14:40	15'	■ 축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14:40~14:55	15'	■ 기공 Ceremony(스크린터치) 및 기념촬영
14:55~15:00	5'	■ 폐식 및 환송